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95



Contents



※ 2025.09.04.(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8.27.~2025.09.03.)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김민석 총리, 새 정부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로 탄소중립 실현 강조 (2025.08.27) 1
- 정부, 2026년 예산안 통해 전기차 전환 지원 및 탄소중립포인트 확대(2025.08.29) 1
- 금한승 환경부 차관, "탄소중립산업법에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담을 것"(2025.08.31) 2
- 포항시, 국제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탄소중립 전략 제시(2025.08.27) 2
- 서울 노원구,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본격화(2025.08.27) 2
- 서울 중랑구, '2025 중랑 ESG 공모전' 개최로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굴(2025.08.27) .. 3
- 화성시, 동탄역을 탄소중립 설치작품 전시장으로 활용(2025.08.27) 3
- 충남도와 15개 시군, 농업 구조개혁 및 2045 탄소중립에 행정력 집중(2025.08.27) 4
- 경남 5개 탄소중립지원센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공동 참가(2025.08.27) 4
- 권익현 부안군수,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유치에 총력(2025.08.27) 4
- 포항시, AI·탄소중립·해양관광 등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사업 발굴(2025.08.29) .. 5
- 용인시의회 '탄소중립연구소 III', 탄소중립사회 전환 방향 논의(2025.09.02) 5

■ AI 분야 6

- 한미정상회담, '제조업 동맹' 본격화 합의... 조선·AI 등 협약 잇따라(2025.08.27) 6

- 용산 나진상가 15·17·18동, AI·로봇 중심 업무시설로 재탄생(2025.08.27)	6
- 안동시, 전통주 제조에 AI·로봇 접목...전국 첫 실증사업 추진(2025.08.27)	7
- 군포시, 폭염 속 AI 무인 냉장고 '군포 얼음땡' 확대 운영 검토(2025.08.27)	7
- 부산 온병원, 카카오톡 기반 AI 서비스 '카카오 케어챗' 도입(2025.08.27)	7
- 부산시, 구글과 손잡고 'AI 스타트업 스쿨' 출범으로 창업 생태계 확장(2025.08.27)	8
- 이동환 고양시장, 코스닥 상장기업 '뉴엔AI' 방문(2025.08.27)	8
-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MAD STARS 2025' 개막...AI 시대 광고 혁신 조명 (2025.08.27)	9
- 광주시,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본격화(2025.08.27)	9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0

■ 탄소중립 분야 10

- KTC, '2025 탄소중립 EXPO'에 2년 연속 참가(2025.08.27)	10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신재생·탄소중립 정보 담은 교육포털 오픈(2025.08.27)	10
- 산단공, '2025 탄소중립 EXPO'에서 산업단지 탄소중립 해법 제시(2025.08.27)	11
- 행복청, UN 국제포럼에서 '행복도시' 탄소중립 성과 발표(2025.08.27)	11
- 한수원, 청정수소 국제포럼 개최로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논의(2025.08.27)	11
- KRISO, '사이언스'지에 해양 중심의 실용적 탄소중립 전략 제안(2025.08.27)	12
- HUG, 지역 카페와 협력하여 다회용컵 '허그컵' 시스템 도입(2025.08.29)	12
- 부산항만공사, 기후산업박람회서 부산항 탄소중립 미래 공개(2025.08.27)	13
- 인천 공기업들,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2025.08.28)	13

- 삼척여성새일센터, '탄소중립 실천 강사양성과정' 수료식 개최(2025.08.29) 14
- 경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 주유소 일회용 비닐장갑 줄이기 시범사업 추진(2025.09.02) 14
- 안산환경재단 ESG탄소중립교육원, 운영 전략 점검 첫 회의 개최(2025.08.31) 14
- 서천지속협, '2025 탄소중립실천 카툰 및 포스터 공모전' 개최(2025.09.01) 15
- 삼척시 탄소중립센터, 탄소중립 실천 모범사례 공모사업 추진(2025.09.02) 15

- AI 분야 16

- 부산시설공단,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 AIoT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시범 도입 (2025.08.27) 16
- 용기원,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2025.08.27) 16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7

- 탄소중립 분야 17

- 포스코그룹,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탄소중립 선도(2025.08.27) 17
- 국제사이버대학교, 탄소중립녹색정원 조성 및 기념식 개최(2025.08.27) 17
- KAIST-프린스턴대, '넷제로 코리아' 프로젝트로 탄소중립 공동연구 착수(2025.08.27) 18
- 안양대, AI·SW·ESG탄소중립 선도대학 비전 선포(2025.08.28) 18
- 켄텍 에너지정책연구소, 국가 에너지 대전환 해법 제시 포럼 개최(2025.08.28) 18
- 전문가, 새 정부 저탄소 농업 정책의 '적응' 전환 및 직불제 확대 주장(2025.08.27) ... 19
- 에너지혁신포럼,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성 강조 (2025.08.27) 19

■ AI 분야 20

- NC AI, 유라클과 맞손...‘바르코’로 산업 AX 추진(2025.08.27) 20
- LG이노텍, 美서 ‘이노 커넥트’ 개최... “자율주행·AI인재 확보”(2025.08.27) 20
- SK이노,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AI시대 에너지 해법 선보(2025.08.27) 21
- LG전자, AI 홈 플랫폼 ‘싱큐 AI’ 유럽 시장에 본격 론칭(2025.08.27) 21
- 인텔, LG이노텍과 손잡고 AI 스마트팩토리 구현(2025.08.27) 21
- SK하이닉스, AI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 제시(2025.08.27) 22
- AI가 채용 시장 판도 바꾼다...취업하려면 AI 마음부터 얻어야(2025.08.27) 22
- 넥센타이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도입으로 VR·AI 기술 접목(2025.08.27) 23
- 포스코DX, 청소년 AI개발자 꿈 지원 위한 ‘AI 유스 챌린지’ 개최(2025.08.27) 23
- KT, 부산서 ‘클라우드데이 2025’ 개최...AI·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전략 공유
(2025.08.27) 23
- 경북대, AI·DX 중심으로 학과 운영 대대적 개편 단행(2025.08.27) 24
- 美 직장인 84% “10년 내 AI가 내 일자리 대체할 것” 우려 확산(2025.08.27) 24
- AI 확산에 원자력 부활...월가, 우라늄 확보 경쟁에 베팅(2025.08.27) 2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김민석 총리, 새 정부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로 탄소중립 실현 강조(2025.08.27) -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 새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함. 또한 기후테크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AI 기반 분산에너지 확산을 통해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을 천명함 - 김 총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에너지 혁신은 상호 필수적 관계임을 역설하며 두 축의 융합이 기후·에너지 위기 극복의 핵심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나아갈 것을 약속함
	□ 정부, 2026년 예산안 통해 전기차 전환 지원 및 탄소중립포인트 확대(2025.08.29) -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6천억 원 증가한 3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됨. 특히 정채 상태에 있는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전환 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신설함 -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지급함. 기존에 지원하던 정부 구매보조금 300만 원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전기차 구입 시 총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올해 3263억 원에서 내년 648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예산 부족으로 조기에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었던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예산도 181억 원으로 소폭 증액하여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장려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금한승 환경부 차관, "탄소중립산업법에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담을 것"(2025.08.31) -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대한민국 ESG 클럽 2025'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산업법'이 국가적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탈탄소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이 갖춰야 할 친환경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함 - 금 차관은 탄소중립산업법이 부처별로 흩어진 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한데 모아 육성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함. 특히 배출권 유상 할당으로 확보된 수익 전액을 산업계에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함 - 또한, 각종 사업의 친환경 수준을 판별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적용 범위를 현재의 은행 대출에서 주식·파생상품 시장으로까지 넓히고, 녹색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금융을 통해 기업의 녹색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임을 공개함
지자체	□ 포항시, 국제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탄소중립 전략 제시(2025.08.27) - 포항시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6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 참가하여, 철강산업 중심 도시에서 친환경 및 AI 신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지역의 변화상을 알리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함 - 이강덕 포항시장은 고위급 대화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포스코 중심의 저탄소 제철 공정 도입,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반의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등 포항의 구체적인 전환 전략을 심도 있게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을 강조함 - 포항시는 이번 회의와 연계하여 '저탄소 철강 글로벌 워크숍'을 직접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행함. 이를 통해 세계 저탄소 철강 산업 협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친환경 혁신도시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림 □ 서울 노원구,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본격화(2025.08.27) - 수도권 자치구 중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가 대표 정책인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함.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아파트 단지, 학교 공터 등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방치된 유휴 공간에 마을숲, 학교숲 등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탄소흡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생활숲 조성 사업에 우선적으로 착수함. 숲 조성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와 5년간의 유지관리 협약이 필수적임 -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는 나무 심기 단계부터 조성 이후의 유지 및 관리까지 주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살핌. 실제 나무 식재는 식재에 적합한 가을철인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서울 중랑구, '2025 중랑 ESG 공모전' 개최로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굴(2025.08.27) - 서울 중랑구가 8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2025 중랑 ESG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인식을 확산시킴.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환경(Environmental) 분야의 다양한 실천 및 교육사례를 발굴하여 인증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응모 대상은 중랑구에 소재지를 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며 개인은 제외됨. 참가 단체는 실천 또는 교육 부문 가운데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음. 신청은 구청 누리집이나 이메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함 - 제출된 사례는 심사를 거쳐 총 30건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며, 이 중 상위 12건은 최우수, 우수, 장려 사례로 별도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함. 선정된 기관은 인증서와 현판 제공 외에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홍보 지원 등 다채로운 혜택을 받게 됨
	□ 화성시, 동탄역을 탄소중립 설치작품 전시장으로 활용(2025.08.27) - 경기도 화성시가 9월 13일부터 3주간 동탄역 지하 4층 공간에서 '동탄역 아트스테이션 에코우주선 MARS 151' 전시를 개최함.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 거점인 동탄역을 일상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임 - 이번 전시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창조하는 미래형 모빌리티인 '에코우주선 MARS 151'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대형 설치작품을 선보임. 현실 속 도시 '화성'과 상상 속 우주 미래 '화성'을 탐사하는 우주선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 - 시는 설치작품 전시 외에도 탄소순환 메시지를 무용으로 표현하는 무빙 퍼포먼스, 특별 강연, 어린이 워크숍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함.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충남도와 15개 시군, 농업 구조개혁 및 2045 탄소중립에 행정력 집중(2025.08.27) - 충청남도가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논산시청에서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정의 핵심 과제인 농업·농촌 구조개혁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기로 결정함 -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형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래 선도형 충남 스마트팜 추진 상황 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짐. 스마트팜 단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253만 평 규모로 조성될 방침임 - 이 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의 민생안전 대책,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활성화, 지역 축제 홍보 등 총 23건의 협조사항과 21건의 건의사항을 공유함. 논의된 안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갈 것을 당부함
	□ 경남 5개 탄소중립지원센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공동 참가(2025.08.27) -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에 위치한 4개의 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제3회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공동으로 참가하여 협력 체계를 과시함 - 이번 박람회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됨. 5개 센터는 공동으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각 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과 역할을 소개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 이번 공동 참가는 광역 센터와 기초 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권익현 부안군수,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총력(2025.08.27) - 권익현 부안군수가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연일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직접 방문하여 설득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 권 군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을 차례로 만나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RE100 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함 - 부안에 산단이 유치되면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연계하여 '지산지소(地產地消)형 RE100 산업벨트' 구축이 가능하며, 이는 국가균형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이끌어낼 핵심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포항시, AI·탄소중립·해양관광 등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사업 발굴 (2025.08.29) - 포항시가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함. AI·바이오·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과 해양관광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사업을 구체화하여 국책사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임 - 보고회에서는 △글로벌 AI컴퓨팅센터 구축 △탄소중립 기술개발 통합센터(DACU 실증) 구축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등 포항시가 최근 수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됨 - 포항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별 세부 실천 계획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임.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의 전략적인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용인시의회 '탄소중립연구소 III', 탄소중립사회 전환 방향 논의(2025.09.02)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연구소III'가 최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힘 - 이번 연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 6월부터 공동으로 수행 중이며,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보고회에는 시 관계 공무원과 연구진이 참석하여 성과를 공유함 - 박희정 대표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함. 연구단체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후속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임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한미정상회담, ‘제조업 동맹’ 본격화 합의… 조선·AI 등 협약 잇따라 (2025.08.27)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조선, 원자력 협력 등 제조업 분야에서 경제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함. 이는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넘어 미래 산업을 함께 개척하는 파트너십으로의 확대를 의미함 - 정상회담 이후 양국 기업들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총 11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원자력, 조선, 항공, LNG,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펀드 조성, 대규모 투자, 기술 협력을 망라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함 - 특히 조선 부문에서는 HD현대와 삼성중공업이 각각 미국 기업과 대규모 투자 및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함.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가 양국 간 협력 분야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하며,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는 의미가 있다고 밝힘
지자체	□ 용산 나진상가 15·17·18동, AI·로봇 중심 업무시설로 재탄생(2025.08.27) -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노후된 나진상가 15·17·18동 일대가 AI 및 로봇 산업 중심의 최첨단 업무시설과 제2보훈회관,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는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임 -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관련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함. 이에 따라 15동에는 지상 21층, 17·18동에는 지상 27층 규모의 대형 업무시설이 건립되며, 두 곳 모두 신산업 중심의 업무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게 됨 - 공공기여 계획의 일환으로, 지상 9층 규모의 제2보훈회관이 신설되어 보훈단체의 권익 증진을 지원하고, 40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제2보훈회관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안동시, 전통주 제조에 AI·로봇 접목...전국 첫 실증사업 추진(2025.08.27) - 경북 안동시가 전통주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하는 혁신적인 실증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함.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AI 자율제조 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결과임 - 이번 사업에는 총 6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통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발효와 숙성에 AI와 로봇 기술이 도입됨. 자동 온도 센서와 연동되는 교반 로봇과 무인 적재 로봇이 투입되어 공정 자동화를 이룰 예정임 - 안동시는 이 기술 도입을 통해 기존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전통주 산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임
	□ 군포시, 폭염 속 AI 무인 냉장고 '군포 얼음뽕' 확대 운영 검토(2025.08.27) - 경기도 군포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AI 무인 냉장고 '군포 얼음뽕'이 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일상 속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이에 시는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시는 지난 7월 하순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3곳에 '군포 얼음뽕'을 설치하여 냉각 생수를 무료로 제공해왔음. 하루 평균 1,200명의 생수가 대부분 오전에 소진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컸으며,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시는 이번 시범운영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여름에는 군포역, 금정역 등 교통 중심지까지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이를 통해 '군포 얼음뽕'을 단순한 폭염 대응책을 넘어 시의 명물로 발전시켜 도시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임
	□ 부산 온병원, 카카오톡 기반 AI 서비스 '카카오 케어챗' 도입(2025.08.27) - 부산 온병원이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카카오헬스케어의 AI 기반 챗봇 서비스인 '카카오 케어챗'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26일 발표함. 부울경 지역에서는 첫 도입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환자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익숙한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진료 예약 및 변경, 진료비 간편 결제, 대기 순서 확인, 제증명서 발급 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병원 이용 전 과정을 매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 - 특히, 환자의 처방 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약물비서' 기능을 운영하여 중복 투약의 위험과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안내하고, 맞춤형 복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강화함. 고령 환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부산시, 구글과 손잡고 'AI 스타트업 스쿨' 출범으로 창업 생태계 확장 (2025.08.27) - '아시아 창업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글로벌 IT 기업 구글과 손잡고 지역의 인공지능(AI) 창업 생태계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섬. 26일 'AI 스타트업 스쿨'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협력의 시작을 알림 - 'AI 스타트업 스쿨' 교육은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됨. 구글 엔지니어와 글로벌 창업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며, '생성형 AI 시대 스타트업 생존 전략', 'AI 마케팅' 등 실질적인 주제를 다룰 예정임 -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산시 창업패키지 사업 심사 우대, IR 참여, 투자사 멘토링 등의 혜택이 주어짐. 구글은 우수 수료자 10명을 선발해 서울 캠퍼스에서 네트워킹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후속 지원도 약속함
	□ 이동환 고양시장, 코스닥 상장기업 '뉴엔AI' 방문(2025.08.27)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6일 일산서구 대화동에 본사를 둔 생성형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뉴엔AI'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짐. 이번 방문은 해당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축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이 시장과 배성환 대표 등은 뉴엔AI 본사를 둘러보고 기업의 성장 현황과 비전, 그리고 지자체의 기업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함. 배 대표는 공공부문에 접목할 수 있는 AI 기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함 - 이동환 시장은 "뉴엔AI의 코스닥 상장은 고양시가 혁신산업 중심 도시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통해 고양시를 자족도시로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MAD STARS 2025' 개막...AI 시대 광고 혁신 조명(2025.08.27) -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국제 광고제인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MAD STARS 2025)'가 8월 27일부터 사흘간 시그니엘 부산과 해운대 일원에서 개최됨.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며 성대한 막을 올림 - 이번 광고제는 'AI-vertising, 인공지능(AI) 광고 마케팅 시대'를 주제로 하여, AI와 창의력이 결합하는 혁신적인 마케팅 현황과 미래 전략을 집중적으로 조명함. 제 일기획 대표, 유명 크리에이터 등 국내외 연사들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임 - 광고제 기간 동안 신인 광고인을 발굴하는 경진대회 '뉴스타즈'와 '영스타즈'도 함께 진행됨.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광고제를 통해 한국 광고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리고 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함
	□ 광주시,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본격화(2025.08.27) - 인공지능(AI)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국가AI컴퓨팅센터'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섬. 9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힘 - 국가AI컴퓨팅센터는 최대 2조 5천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구축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로, 광주가 AI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임. 유치위원회는 유치 전략 자문, 정부 건의, 국민 공감대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광주시는 이미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첨단3지구에 5만㎡ 규모의 예정 부지와 전력 등 기반 시설을 미리 마련하는 등 유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음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KTC, '2025 탄소중립 EXPO'에 2년 연속 참가(2025.08.27)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국내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5 탄소중립 EXPO'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가한다고 밝힘. 이 행사는 글로벌 기후산업 동향과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평가받음 - KTC는 이번 전시회에서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을 위한 'GHG-MRV 토털 솔루션'을 통해 고정밀 탄소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와 연계된 탄소중립 건축인증(ZCB), 청정수소 인증제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검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 또한 KTC는 CFE(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를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 'CFE Round Table Meeting'에 참석하여 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글로벌 CFE 확산 전략을 논의함. 이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전함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신재생·탄소중립 정보 담은 교육포털 오픈(2025.08.27)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신재생 에너지, 탄소중립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에너지 교육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에너지 교육포털' 사이트를 공식 오픈함.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임 - 이 교육포털은 학생, 교사,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교원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교재와 지도안을 제공하여 현장 수업의 활용도를 높였음 - '학습자료', '강의형 교육', '참여형 교육', '에너지사이버박물관' 등의 체계적인 카테고리화를 통해 온라인 강좌 수강과 강사 파견 신청 등이 가능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리터러시 증진을 목표로 콘텐츠를 지속 강화할 방침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산단공, '2025 탄소중립 EXPO'에서 산업단지 탄소중립 해법 제시(2025.08.27) -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5 탄소중립 EXPO'에 참가하여, 국내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전환을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고 발표함 - 산단공은 행사장에 마련된 홍보관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사업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사업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등 핵심사업들을 상세히 안내함. 특히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용자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상주하며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임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에 최대 500억 원의 용자금을 최저 1.3%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사업임. 이를 통해 기업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함
	□ 행복청, UN 국제포럼에서 '행복도시' 탄소중립 성과 발표(2025.08.2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주최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에 공식 초청되어, 행복도시의 친환경 개발 전략과 탄소중립 성과를 국제사회에 발표함 - 2007년부터 조성 중인 행복도시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녹지와 수변공간으로 확보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전용 BRT 중심의 대중교통망과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 - 행복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몽골, 이집트 등 여러 국가와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도시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방침임. 행복도시 모델을 세계로 확산시키며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한수원, 청정수소 국제포럼 개최로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논의(2025.08.27) -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산 벡스코에서 '제3회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함. 이번 포럼은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주목받는 청정수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적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됨 - '2050 Net Zero 달성을 위한 청정전력과 청정수소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국제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생에너지기구(IRENA)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민·관·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가하여 청정수소 경제성 확보 방안과 실증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함 - 한수원은 포럼 현장에서 국제기구인 GGGI, 한국수소연합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함. 앞으로도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실증을 통해 청정수소 사업화에 앞장서고,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힘
	□ KRISO, '사이언스'지에 해양 중심의 실용적 탄소중립 전략 제안(2025.08.27)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온라인 논평(eLetter)을 게재하며, 조선·해운 분야의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탄소중립 전략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제안함 - KRISO는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 제한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단기적으로 즉각 실행 가능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함 -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조업에서 포집한 탄소를 활용하는 CCU 기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해사기구(IMO)의 중기 조치와 연계하여 검증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이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전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HUG, 지역 카페와 협력하여 다회용컵 '허그컵' 시스템 도입(2025.08.29)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친환경·탄소중립 경영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 본사(BIFC) 인근에 위치한 지역 카페 10곳과 함께하는 다회용컵 '허그컵'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힘 - HUG는 지난해 사내에 다회용컵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일회용컵 ZERO'를 달성한 바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전파하고자 이번 사업을 새롭게 시행함. HUG, 다회용컵 업체, 지역 카페 3자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순환 시스템을 구축함 - 이용자는 음료 주문 시 허그컵을 제공받고 사용 후 각 층에 위치한 반납함에 컵을 반납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운영됨. 또한, 전용 앱을 이용하여 컵 이용 1건당 300원의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부산항만공사, 기후산업박람회서 부산항 탄소중립 미래 공개(2025.08.27) - 부산항만공사(BPA)가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 참가하여 '2050 부산항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대내외에 선보임. 에너지 자립,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등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집중적으로 소개함 - BPA는 현재 신항 배후단지에 35.9M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 중이며, 화물차 수소충전소도 가동하고 있음.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감축 목표에 발맞춰 메탄올 및 LNG 등 친환경 선박 연료의 상업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기존에 유류를 사용하던 항만 안내선을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추진선으로 신규 건조하여 올해 말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임. 이를 통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100% 감축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부산항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인천 공기업들,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2025.08.28) -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정책소통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의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과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 - 토론회에서는 '건설·교통분야 특성을 반영한 인천 공기업 ESG경영 현황 및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하여, iH와 인천교통공사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ESG 경영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함 - iH 류윤기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인천의 중추적 기관들이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원도심 역세권의 효율적 활용 등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삼척여성새일센터, '탄소중립 실천 강사양성과정' 수료식 개최(2025.08.29) -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삼척시 평생학습관에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인 '탄소중립 실천과정 강사양성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함. 교육을 이수한 경력단절 여성 18명의 새로운 사회적 출발을 응원하고 격려함 -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총 53회, 159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탄소중립 기본 이론과 분야별 실천 방안, 스피치 및 강의 교수법 등 실무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높은 호응을 얻음 - 진영미 센터장은 환경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취업 의지가 맞물려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이번 교육을 통해 수료생들이 환경 분야 전문 강사로 성장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 경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 주유소 일회용 비닐장갑 줄이기 시범사업 추진 (2025.09.02) - 경상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가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주유소 일회용 비닐장갑 줄이기 시범사업'을 추진함.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로 기획됨 - 이번 시범사업에는 창원, 진주, 김해, 사천 등 도내 주유소 15곳과 고속도로 휴게소 2곳이 자발적으로 동참함. 참여 주유소에서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제공하지 않고, 대신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인 파우치와 장갑을 한정 수량으로 제공함 - 정판용 센터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주유소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활동이라고 강조하며, 생활 속의 작은 변화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안산환경재단 ESG탄소중립교육원, 운영 전략 점검 첫 회의 개최(2025.08.31) - 안산환경재단이 최근 ESG탄소중립교육원의 향후 운영 전략을 점검하고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공식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이번 회의는 신임 안규철 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교육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회의에는 흥희관 대표이사, 안규철 원장, 신진옥 센터장이 참석하여 ESG 탄소중립 교육의 운영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 특히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원의 역할과 방향을 새롭게 재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음 - 안산환경재단은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교육원이 관내 기업과 상공인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 데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과 기업을 잇는 교육 허브로 만들 예정임
	□ 서천지속협, '2025 탄소중립실천 카툰 및 포스터 공모전' 개최(2025.09.01) -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서천군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5 서천군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카툰·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힘 - 공모전의 주제는 '기후위기 극복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으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카툰이나 포스터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됨. 공모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됨 - 수상작은 10월 17일 발표될 예정이며, 초·중·고 부문별로 금상, 은상, 동상을 선정하여 협의회 상장과 부상으로 서천사랑상품권을 수여함.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삼척시 탄소중립센터, 탄소중립 실천 모범사례 공모사업 추진(2025.09.02) - 삼척시 탄소중립센터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2025 삼척시 탄소중립 생활실천 모범 공동주택 공모사업'과 '2025 삼척시 탄소중립 시민참여 모범사례 공모사업'을 동시에 추진함 - '탄소중립 생활실천 모범 공동주택 공모사업'은 9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삼척시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규모에 따라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음 - '탄소중립 시민참여 모범사례 공모사업'은 9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추진되며, 삼척시민은 물론 삼척시에 소재한 기관과 단체도 참여 가능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임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부산시설공단,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 AIoT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시범 도입(2025.08.27) - 부산시설공단이 8월 18일 부산종합버스터미널 1층 대합실에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이는 공공장소의 폐기물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임 - 이번에 도입된 'AIoT 스마트 Bin'은 부산 소재 기술창업기업 (주)서르가 개발한 제품으로, 이용자가 쓰레기를 투입하면 AI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종이, 플라스틱, 캔 등으로 분류하는 '똑똑한 쓰레기통'임. 이를 통해 미화 인력의 분류 부담을 완화하고 재활용품 선별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설치는 부산시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혁신 창업기업의 기술을 공공현장에 실증 적용하는 프로그램임. 공단은 운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다른 공공시설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용기원,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2025.08.27)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9월 12일까지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힘. 자체적인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AI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 -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사나 주된 사업장을 둔 AI 중소·스타트업, 대학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 총 50개사임. 선정된 기업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NPU) 크레딧을 3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함 - 주어진 크레딧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사업 기간 내내 할인된 가격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용기원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함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포스코그룹,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탄소중립 선도(2025.08.27) - 포스코그룹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독자적인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하이렉스(HyREX)'를 중심으로 그룹의 탈탄소 전략과 친환경 철강 생산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함 - 전시관의 핵심 기술로 소개된 '하이렉스(HyREX)'는 기존의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신적인 친환경 제철 기술임.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포스코그룹은 하이렉스 기술과 더불어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AI 기반의 스마트 고로, 4족 보행 로봇 등 다양한 저탄소·스마트 기술 포트폴리오를 함께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철강 리더십'을 다시 한번 강조함
대학교	☐ 국제사이버대학교, 탄소중립녹색정원 조성 및 기념식 개최(2025.08.27) -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 옥상에 '탄소중립녹색정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기념식을 개최함. 이 공간은 식물치유클리닉학과의 전문적인 실습장으로도 운영될 예정임 - 해당 녹색정원은 학생들이 식물 관리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며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학습의 장이 됨. 나아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원 워크숍, 식물치유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정례화하며 지역사회에 녹색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홍승정 총장은 이 정원이 학생들의 배움의 현장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함. 또한 이창래 학과장은 향후 반려식물병원 및 협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힘. 학과는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을 시작할 예정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KAIST-프린스턴대, '넷제로 코리아' 프로젝트로 탄소중립 공동연구 착수 (2025.08.27)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넷제로-코리아(NZK)'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 시킴.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두 대학이 미래 기술 연구를 위해 협력함 - 이번 프로젝트는 단기적으로 한국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재원은 구글과 양 대학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마련함 - 프린스턴대가 2021년 발표했던 '넷제로 아메리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모델링 방법론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계획임. 이를 통해 에너지와 산업 시스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안양대, AI·SW·ESG탄소중립 선도대학 비전 선포(2025.08.28) - 장광수 안양대학교 총장이 전체교직원회의에서 'AI선도대학, SW중심대학, ESG탄소중립 선도대학'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는 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함. 대학혁신지원사업 최우수 등급 획득과 국비 확보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전함 - 장 총장은 AI, SW, 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산학협력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라이즈(RISE)사업, 정부 프로젝트 수주, 대학교육 혁신 및 취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겠다고 말함 - 또한, 강화캠퍼스발전위원회와 미래평생교육원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스마트에어돔 사업 수주, 체육공원 조성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함. 이를
	□ 켄텍 에너지정책연구소, 국가 에너지 대전환 해법 제시 포럼 개최(2025.08.28)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최근 설립한 '에너지정책연구소(KEPI)'의 창립을 기념하여 부산 벡스코에서 '미래에너지·AI 리더 양성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국가 에너지 대전환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함 - 켄텍은 지난 5월 설립된 에너지정책연구소를 통해 향후 에너지정책대학원의 기반을 조성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등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는 전문 정책연구기관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 포럼에서는 산·학·연·정 협력 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트위크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됨 -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관점의 전력망 확충과 일관성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함. AI 기반의 분산전력망 등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됨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전문가, 새 정부 저탄소 농업 정책의 '적응' 전환 및 직불제 확대 주장(2025.08.27) -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기후 대응 정책의 중심축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완화)에서 기후변화 '적응'으로 옮겨감에 따라, 전문가들이 탄소중립직불제의 확대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유연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섬 - 김태영 교수는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포럼'에서 현행 제도가 감축량에 따른 보상 구조로 인해 농가 참여가 저조하고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직불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 특히, 재해보험과 재배 기술 지원, 수급 안정화 등 농가의 기후 대응력을 높이는 '적응' 정책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함. 감축, 적응, 공익적 기능을 함께 평가하는 다목적 직불제로 전환하고 민관 협력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에너지혁신포럼,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성 강조 (2025.08.27) - '제10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에서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의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 특히 AI 및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포럼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산업 육성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특히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함 -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의 상황에서, RE100 산업단지 구축 등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설비 제조, 기술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NC AI, 유라클과 맞손… ‘바르코’ 로 산업 AX 추진(2025.08.27) - NC AI가 모바일 플랫폼 전문 기업 유라클과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서비스의 확산과 기업 시장의 본격적인 공략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이번 협력은 양사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둠 - 양사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NC AI의 거대언어모델(LLM) ‘바르코(VARCO)’와 유라클의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임.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AI 기반 솔루션을 확대 적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임 - 이번 협약의 핵심 목표는 NC AI가 개발한 AI ‘바르코’의 기업 고객사를 확대하는 것임. 유라클의 AI 플랫폼 ‘아테나’와 결합하면 멀티모달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고도화된 맞춤형 AI 플랫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LG이노텍, 美서 ‘이노 커넥트’ 개최… “자율주행·AI인재 확보” (2025.08.27) - LG이노텍이 미래 사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직접 채용하는 행사 ‘이노 커넥트(Inno Connect)’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힘. 이는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평가됨 - ‘이노 커넥트’는 MIT, 버클리대 등 미국 주요 14개 대학의 박사 및 경력 인재 30여 명을 초청하여 회사의 비전과 기술 리더십을 소개하는 채용 연계형 행사임. 노승원 CTO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직접 참석해 인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 - 참석 인재들의 주요 연구 분야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로봇틱스 등으로, 이는 LG이노텍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과 정확히 일치함. 회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과 육성 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인재 영입 의지를 보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SK이노,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서 AI시대 에너지 해법 선포(2025.08.27) - SK그룹이 8월 2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 참가하여, 재생에너지부터 배터리 ESS, SMR(소형모듈원자로)에 이르기까지 다가오는 AI(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힘 -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AI 시대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에너지 해법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둬. SK E&S는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의 역량과 저탄소 LNG 생산 계획을 공개함 - 또한, SK온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하기 위한 ESS와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선보임. SK는 이러한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원을 종합하여 고객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돕는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
	□ LG전자, AI 홈 플랫폼 ‘씽큐 AI’ 유럽 시장에 본격 론칭(2025.08.27) - LG전자가 다음 달부터 AI 가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제품 상태를 분석하여 고장까지 예방해 주는 혁신적인 AI 홈 플랫폼 ‘LG 씽큐(ThinQ) AI’를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론칭한다고 발표함 - ‘씽큐 AI’는 기존 가전에 새로운 AI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씽큐 업(ThinQ UP)’과 제품의 고장 및 이상 징후를 사전에 관리하는 ‘씽큐 케어(ThinQ Care)’ 등 두 가지 핵심 서비스로 구성됨. 이를 통해 구매 후에도 계속해서 더 나은 사용 경험을 제공함 - LG전자는 국가별 사용 환경과 선호 기능을 고려하여 유럽에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기능을 선보일 계획임.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Fresh Keeper’ 기능을,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AI Saving Mode’ 등을 제공하여 현지 고객 만족도를 높일 예정임
	□ 인텔, LG이노텍과 손잡고 AI 스마트팩토리 구현(2025.08.27) -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사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기반으로 LG이노텍 구미 공장의 AI 검사 공정을 지원하며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6일 발표함 - 인텔은 지난해부터 LG이노텍과 협력하여 인텔 코어·제온 프로세서와 아크 GPU를 활용한 AI 검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해왔음. 이 시스템은 생산 공정의 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여 비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특징임 - LG이노텍은 지난해 모바일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에 인텔의 AI 비전 검사 솔루션을 처음으로 적용했으며, 올해는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를 생산하는 구미 4공장 등 국내외 주요 생산 거점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밝힘
	□ SK하이닉스, AI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 제시(2025.08.27) - SK하이닉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 참가하여, 자사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대중에게 제시함.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보여줌 - SK하이닉스는 'AI for Impact' 포럼을 별도 세션으로 개최하여, 사회적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 전략 보고서를 자동화하고, 1인 가구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발표함 - 전시 부스에서는 '생물다양성 AI 모니터링' 체험 앱을 통해 관람객들이 기후지표 중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AI 교육 지원 프로그램, 취약계층 안전망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며 기술과 사회적 가치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함
	□ AI가 채용 시장 판도 바꾼다...취업하려면 AI 마음부터 얻어야(2025.08.27)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채용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이미 채용 평가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필기·역량검사(57.5%)와 서류 전형(41.5%)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SK텔레콤의 '에이닷 비즈 HR', 잡코리아의 '나인하이어' 등 기업용 AI 채용 평가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음. 이들 서비스는 지원서 검토, 업무 적합성 평가, AI 면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음 - 하지만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AI 평가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기계를 상대한다는 불쾌감 등 거부감도 상당함. 전문가들은 AI를 일부 데이터 정리에 활용하되, 세부 절차에는 사람이 직접 평가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넥센타이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도입으로 VR·AI 기술 접목(2025.08.27) - 넥센타이어가 서울 마곡 중앙연구소에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하이 다이내믹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감. 이는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실제 주행 환경을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하는 최첨단 장비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타이어 성능을 검증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차 시험 및 시제품 생산을 줄여 비용 절감과 기술 혁신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음 - 넥센타이어는 이번 도입을 기점으로 유한요소해석(FEM)과 AI 기술을 접목한 ‘풀버추얼 개발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임. 이를 통해 모든 테스트를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음
	□ 포스코DX, 청소년 AI개발자 꿈 지원 위한 ‘AI 유스 챌린지’ 개최(2025.08.27) - 포스코DX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5 AI 유스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인간 중심의 AI’를 주제로 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개발 역량을 선보이는 대회임 - 올해는 총 211개 팀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2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함. 본선 진출팀은 포스코DX 소속 AI 엔지니어와 서울대 AI연구원으로 구성된 멘토진의 집중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물 시제품으로 구현함 - 심사 결과, 드론에 AI를 접목해 산불 예방 시스템을 개발한 팀이 교육부장관상(대상)을 수상함. 이 공모전은 AI 개발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기업과 학계의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음
	□ KT, 부산서 ‘클라우드데이 2025’ 개최…AI·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전략 공유(2025.08.27) - KT가 부산광역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부산 벡스코에서 클라우드 전문 세미나 ‘부산 클라우드데이 2025’를 개최함. 이 행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됨 - KT는 이번 행사에서 공공 및 제조 분야 업무 환경에 바로 적용 가능한 클라우드 도입 전략과 기업별 맞춤형 AX(AI 전환) 전략을 상세히 설명함. ‘KT 클라우드플렉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KT 매니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됨 -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최신 트렌드와 클라우드 도입 지원 방안, KT클라우드의 AI 파운드리를 통한 AX 혁신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짐. KT는 현장에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참석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음
대학교	□ 경북대, AI·DX 중심으로 학과 운영 대대적 개편 단행(2025.08.27) - 경북대학교가 2026학년도부터 입학전형 및 학과 운영 체계를 AI(인공지능)와 DX(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함. 이는 미래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습자 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 기존의 소프트웨어융합과와 빅데이터과를 통합하여 '소프트웨어융합학과'로 재편하고, AI코딩,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등 4개의 세부 전공을 신설하여 총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임. 영상미디어콘텐츠학과 역시 신기술 기반 교육을 강화함 - 지난해 전국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한 경북대는 최근 경기도 'RISE' 사업에 선정되어 약 1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됨. 이를 바탕으로 IT, 바이오, 항공 등 6T 분야의 지역특화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임
해외	□ 美 직장인 84% “10년 내 AI가 내 일자리 대체할 것” 우려 확산(2025.08.27) -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고용 불안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가입자의 84%가 10년 내 자신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함 - 응답자들이 예상한 자신의 일자리 잔여 수명은 평균 2.3년에 불과했으며, 43%는 이미 소속 회사에서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함. MS,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종사자들의 예측이 특히 비관적이었음 - AI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AI발 변화 속도에 비해 노동·교육 정책의 대응이 느리다는 비판이 제기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현행 제도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AI 확산에 원자력 부활...월가, 우라늄 확보 경쟁에 베팅(2025.08.27) - 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 발전이 재조명받고 있음. 이에 따라 원전 연료인 우라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월가의 투기 자금까지 몰리고 있음 - MS, 아마존,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퉈 원전 기반 전력장기계약(PPA)에 나서고 있음. 이는 AI 시대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 프로젝트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우라늄 생산은 카자흐스탄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고농축우라늄(HALEU) 생산은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어 공급망이 매우 취약함. 이러한 공급 부족과 투기 자금 유입으로 우라늄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전 연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